



미 해군이 병사들의 저체온증 우려를 줄일 묘안을 찾아 제주에서 현장 연구에 착수했다. 사진은 차귀도 앞바다에서 물질에 나선 제주 해녀들.

해녀 몸 속엔 특별한 미생물이 있다?

미 해군 '해녀 인체 미생물 체온 상승에 기여' 제주도 검증 "후손에게 대물림 됐을 것"... "저체온증 줄일 방법 찾겠다"

미국 해군이 병사들의 저체온증을 막는 묘안을 찾으려고 다름 아닌 제주도에서 연구에 착수했다고 UPI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제주발로 타전한 이 날 기사에서 '해녀' (haenyeo)를 자세히 소개하며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제주 할머니들이 미 해군의 연구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들 해녀는 대대로, 특히 어머니가 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데, 1970년대 초 해녀복이 검은색 고무로 바뀐 것 말고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해녀 규모는 수십 년에 걸쳐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대부분 나이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제주 문화의 핵심이자 적박한 자연, 정치적 억압 속에서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 해군은 본토에서 연구원들을 파견해 이들 해녀를 직접 찾아 나섰다. 한때 접근이 어려웠던 북극이 점차 군사적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느끼는 중압감, 저체온증 우려 등을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는 목적에서다.

이들 연구원 중 한 명인 문태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특히 해녀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연구 중에 가장 괴짜 같 은 생각"이라면서도 해녀 사이에 대 물림되는 인체 미생물이 체온 상승 에 기여하는지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해군 예산으로 50만 달러 규 모의 연구를 맡아 해녀의 피부 및 체내 미생물이 바닷속 같은 추운 환 경에서 인체와 교신하며 체온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문 교수에 따르면 인체에는 세포 의 10배에 달하는 미생물 군체가 있 는데, 성인으로 치면 이들 미생물 군 체가 시간당 1°C씩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미 해군 관계자는 문 교수의 연구 가 해군 잠수와 연관됐으며 "북극 지 역에서 해군 작전을 확대하는 데 따 라 수중 작전을 위해 체온 유지를 강 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특히 해녀의 미생물이 후손에게 대물림 됐을 것이라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해녀는 추위에 맞선 사람들 의 강력한 표본"이라면서 "200년 전 부터 해녀의 후손이 해녀가 되면서 유전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타대 멜리사 일라도 연구원 또 한 제주 해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앞서 인도네시아 바자우족의 잠수 능력을 연구했는데, 얼마 전 에는 제주를 방문해 해녀연구에도 착수했다.

그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유전적 측면에 무 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로잡습니다 본보 지난 9일자 4면 '제주항 선석 부족 사태' 제하의 기사 중 부제에 게재된 '해군' 함정은 '해경' 함 정으로 바로잡습니다.

명절이 눈 앞인데... 밀린 임금 어찌나

지난 8월 말 기준 104억 집계 전년보다는 소폭 줄어 30억 가량 중재 안돼 사법 절차... 추석 전 해결 독려

올해 제주지역 임금 체불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해 8월말 기준 도내에서 신고된 체불 임금액은 1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원보다 8.8% 줄었다. 이중 73억원(70.1%)은 광주지방고 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 재를 통해 해결됐고, 29억5400만원 (28.3%)에 이르는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억7050만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 신

고는 청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장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 곳에 달하는 곳 이 임금을 제 때 못주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올해 체불임금 사업장은 772곳으 로 전년(967곳)에 견줘 20.2% 줄었 다. 올해 임금을 제 때 지급 받지 못 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6.3% 감소한 1987명이다. 임금 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 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이 었다.

임금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 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73곳으 로 전체의 35.3%를 차지해 가장 많 았으며, 건설업이 232곳(3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78곳), 제조업(55곳), 운수창고 및 통신업(37곳)이다. 단 기준을 임금 체불 사업장 수에 서 임금 체불액으로 변경했을 땐 건 설업이 41억원2200만원(39.4%)을 체불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도 소매·음식·숙박업(25억9100만원· 24.82%),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10억5000만원·10%)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여전히 123곳이 제 때 지급하지 않 았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지방고용노동청과 제주출입국관리 사무소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추석 이전에 최대한 해소하고, 해결이 어려운 체 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 단이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 한다. 또 제주도와 행정시는 선급금 과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 용해 추석 이전에 관공급사와 물품 구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 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hasm@ihalla.com



9일 제주서중학교 앞 지하보도가 실내 조경과 조명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벽화를 그려 넣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이미지 변신이 나타났다. 이상국기자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 12년만에 '변신'

제주시 실내 조경·조명 시설 제주시 실내 조경·조명 시설 개선은 완료하고 벽화를 그려 넣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이미지 변신이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제주서중학교 앞 지하보도 내부 시설 및 이미지 개 선공사가 완료돼 12년만에 새롭게 단장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서중 앞 일주서로에 위치한 지하보도는 제주 민속옥일시장 입구의 교통 체증 해소 와 학생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을 위해 조성됐다. 그렇지만 지난해 내부 타일이 일부 떨어지는 가 하면 시설 노후화로 인 해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또 단조로운 내부 환경으로 통행 시 이용 불편 등 지속적인 재정비 필요 성이 대두됐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지난 5월 사업 비 9000만원을 투입해 타일을 보수 하고 실내조경과 조명시설 보완 공 사에 착수 최근 완료함으로써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통행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상부의 침하되는 인도 정 비 완료와 함께 추가로 사업비 5000 만원을 투입해 녹 발생 부품 및 자재 교체 등 승강기 보수를 마무리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분양경기 기대감 제주시 공동주택 공급 ↑

허가·착공건수 두자리 상승률 대단지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최근 제주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 공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주춤했던 공동주택 건설이 올해 들어 허 가건수와 착공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자리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활 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공동주택 허가는 1369세대, 착

공은 1105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허가는 10.5%, 착공 은 12.5%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공동주택 허가 현황 을 보면 ▷다세대 404세대 ▷연립주 택 713세대 ▷아파트 252세대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착공현황은 ▷다세 대 291세대 ▷연립주택 281세대 ▷ 아파트 533세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건설 증가는 당 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접 수된 공동주택 건축허가(사업승인) 도 24건에 1119세대에 달하는데다, 추가적으로 여러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준비 과정에 있어 내년까지 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이처럼 공동주택 건설이 증 가하고 있는 이유는 마분양 감소와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 승해 주택업체의 분양경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공동주택 공급 확 대가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고분양가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분양보

증서 발급 시 분양가격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이다. 현재 건축허가 (사업승인) 전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71세대 규모의 뉴크라운 호텔 부지 아파트, 시대부고 인근 아파트 (216세대), 하구리 단지형 아파트 (429세대)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주택 수요자들에게 준공예정 공동주 택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는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도심지는 신 구가 많고, 외곽은 허가받고 중단했 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준비중에 있는 등 내년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추석선물 단연 으뜸! 1위! 파격적 봉사!

구중구포 흑삼스틱(32개) 1세트+1세트 더

2세트 현재 인터넷 가격

포천흑삼스틱 220,000원 → 50,000원

9번 찌고 말리면 사포닌영리, 면역력 최고! 어린이이 할아버지 쿨!

격이다른 발효침향 60환

체력증진, 혈행개선, 손발저림

60환 1세트 현 480,000원 → 오늘주문 58,000원

세종임금 말하기를 돈을 많이 주고라도 꼭 구입토록 하라!

1995 가전 의료기 전문기업 HASSEL 주식회사 하셀 제주도 지사장 이현규

주문 상담 대표 1577-9672, 010-3699-5888 농협 : 352-1624-4713-33 예금주 이현규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지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효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잔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많은 미생물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